

베이징 집단감염 79명 확진...감염경로 불명

등교 중단·거주지 봉쇄
5개 성·시 식품 안전 검사
지방정부 베이징 방문 금지



최근 중국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싼파디(新發地)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싼파디 시장 방문자나 인근 거주 주민들이 14일 베이징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79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생활 방역 체제에 들어갔던 베이징이 등교를 취소하고, 거주지 봉쇄를 확대하는 등 다시 비상에 걸렸다.

15일 관영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집단 감염 발생지인 싼파디(新發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에 취했던 주택단지 봉쇄와 교육시설 수업 중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베이징시는 싼파디 도매시장과 관련된 확진 환자가 나온 하이먼(海澱) 구 위취안(玉泉) 시장 주변 10개 주택단지에 대해 이날부터 봉쇄식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봉쇄식 관리에 들어간 주택단지 주민은 모두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베이징시는 또 위취안 시장 근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학년 등교를 중단했다.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베이징과 톈진(天津)을 비롯해 광둥(廣東)성, 허난(河南)성, 간쑤(甘肅)성 등 5개 성·시는 대대적인 식품 안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각 성·시는 해산물, 냉동 정육(소·돼지·양), 가공류 등에 대해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대형 식당과 편의점 등 식품 취급 업체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도 베이징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쑨춘란 국무원 부총리는 전날 국무원 코로나19 연합 방역체계 회의에서 "과감한 조치로 베이징 집단감염 확산을 막겠다"면서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싼파디 도매시장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쑨 부총리는 "시장은 사람이 밀집하고, 유동 인구가 많아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면서 "싼파디 도매시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베이징시는 싼파디 시장 인근 11개 주택단지는 봉쇄했으며, 3개 초등학교와 6개 유치원의 수업을 중단했다. 또 싼파디 도매시장 인근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격상하고, 4개 구의 10개 지역을 중위험 지역으로 상향했다.

전문가들은 베이징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염병 전문가인 홍콩대 벤 카울링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는 베이징에서 코로나19 2차 파동의 시작"이라며 "분명히 베이징에

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방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명보 등에 따르면 산둥, 쓰촨, 윈난, 네이멍구, 신장 등의 지방 정부는 최근 14일 동안 베이징 내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 14일 격리를 명령했다. 베이징의 저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도 코로나19 핵산검사나 건강 코드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후야야 호텔 등에 투숙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36〉 장준

장준(張俊, 1086~1154)의 자는 백영(伯瑛)으로 현 간쑤성 성기 출신이다. 악비, 한세충, 한기와 함께 남송의 4대 명장으로 평가된다. 악비 처형에 관련되어 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마술과 공술에 뛰어나 16세에 삼양 궁전수가 되었다. 금군의 남침으로 북송의 수도 개봉이 함락되고 북송 왕조가 붕괴되는 정강의 난이 일어났다. 강왕 조구 아래서 근왕군에 참여했다. 강왕에게 개봉으로 돌아오라는 비밀서한이 도착하자 그에게 대책을 물었다. 그는 답하기를 "이는 오랑캐들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왕께서 바깥에 계신데 이는 하늘이 내린 행운입니다. 가서 저들에게 불잡혀서야 되겠습니까?" 개봉이 함락되자 조왕에게 황제 등극을 권했

답할 생각을 해야지 어찌 유광세를 부러워하오" 장준이 눈물을 흘리며 죽음으로 보답하겠다고 맹세했다. 소흥 10년(1140) 금이 남송간의 회의를 무시하고 다시 남침하였다. 그는 안휘성 숙주와 박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부장인 왕덕의 지모와 용맹이 큰 힘이 되었다.

임조해 황제 고종을 알현하자 황제는 당나라 안사의 난 진압에 공을 세운 괘자의전(郭子儀傳)을 읽어 보았는지 하문했다.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자 고종이 말하기를 "경이 괘자의처럼 조정을 받든다면 그대 자신과 자손들이 괘자의처럼 번성할 것이오. 만약 군대의 힘을 믿고 조정을 무시하면 자손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대 또한 화를 입을 것이오. 이를 명심하시오." 금군과의 싸움에서 여러번 승리하여

금군 남침 막은 남송의 4대 명장

다. 눈물을 흘리며 거절하자 거듭 주장하기를 "왕께서는 황제의 친동생이시고 민심이 우러러 봅니다. 빨리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천하의 뜻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응천부에서 즉위하니 남송 고종이다.

1129년 명주(明州)를 지키고 있는데 금군이 침공했다. 명주 전투는 고종이 해상을 통해 남으로 피신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금군의 남하를 저지한 중요한 전투였다. "황제께서 바다로 피난중이시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큰 상을 줄 것이고 나아가지 않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싸움을 독려해 승리했다. 강화도초사로 임명되어 반란을 일으킨 이성 토벌에 참여했다. "장준의 군대가 매우 기강이 엄정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아 고종이 장준을 심성이 충성스럽지만 관직을 탐하는 결점이 있소. 반드시 이를 고려해 기용해야 하오" 고종이 일찍부터 장준의 탐욕을 경계했음을 알 수 있다.

일선 근무를 마치고 건강으로 돌아와 고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동료 장군 유광세가 유유자적하며 신선처럼 산다고 부러워했다. 고종이 말하기를 "지금 부귀가 넘칠 정도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소?" "모두 폐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고종이 재차 말하기를 "경이 그것을 안다면 마땅히 은혜에 보

군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금군과의 순창 싸움에서 유기가 대승하자 전공을 시기해 불편한 사이가 되었다. 또한 맹장 악비와도 여러번 군락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이가 나빠졌다. 악비가 여러번 편지를 보내 겸양의 뜻을 나타냈지만 틀어진 사이가 회복되지 않았다.

재상 진회는 군권을 견제하기 위해 한세충, 악비, 장준에게 추밀원 관직을 주는 대신 군권을 회수토록 하였다. 그는 추밀사에 임명되었다. 진화와 뜻을 같이해 대금 회의를 저지한 장준은 스스로 먼저 휘하의 군대 통솔권을 조정해 바쳤다. 상주하여 "신은 이미 추밀원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 과거 신이 관할하던 군대를 모두 조정에 귀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악비를 제거하기 위해 악비의 부장인 왕귀와 왕준을 꼬드겨 악비가 군권을 다시 장악하려 한다는 음모를 꾸렸다. 모친 고문을 가해 악비와 그의 아들 악운, 부장 장현의 자백을 받아냈다. 1141년 악비는 사형에 처해졌고 재산은 몰수되었다. 유족은 지방에 유배되었다. 추밀사의 직위에서 물러날 뜻을 보이지 않자 재상 진회는 장준의 퇴직을 추진하였으나 고종이 불허하였다. 관리들이 계속 장준의 허물을 공격하자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1142년 삼진절사사로 옮겨졌고 청하군왕에 봉해졌다. 사후 충열(忠烈)의 시호가 내려졌다.

두손으로 물컵 들고 느릿느릿 "트럼프 아픈가봐" 트위터 들썩

부자연스런 모습 잇따라 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을 찾았다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잇따라 노출하면서 어디 아픈 것 아니냐는 얘기로 트위터가 들썩였다.

발단이 된 건 토요일인 13일(현지시간)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올랐을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준비돼 있던 물컵을 오른손으로 들어 물을 마시려다가 잠시 멈추고 왼손으로 잔을 거들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부자연스럽게 비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축사가 끝난 후 연단을 내려가면서 또한 한 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장면이 연출됐다. 그리 경사가 심해 보이지 않는 계

단을 내려가면서 느리게 영금영금 걷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당장 트위터에서는 두 가지 장면을 골라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14일 '트럼프 괜찮지 않다' (#TrumpIsNotWell), '트럼프 아프다' (#TrumpIsUnwell)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수십만 번 사용됐고 인기주제가 됐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두 손을 이용해 물을 마시던 장면을 찾아내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하이힐을 처음 신은 소녀 같다'고 놀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짜증 섞인 반응을 내뿜었다. /연합뉴스

"반도체 조달 어려워진 화웨이 삼성전자와 손잡을 확률 50 대 50"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보도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한국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업계 애널리스트 마지화는 "화웨이가 5G 관련 칩을 제조하도록 삼성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급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삼성이 화웨이에 도움을 줄 실질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타임스는 삼성이 화웨이의 5G 장비용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고, 화웨이는 스마트폰 시

장의 상당 부분을 삼성에 양보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5G 업계 전문가는 화웨이와 삼성의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면서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양보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화는 "미국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화웨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가 반도체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이 삼성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외국 반도체 업체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 화웨이의 반도체 조달에 큰 타격을 주는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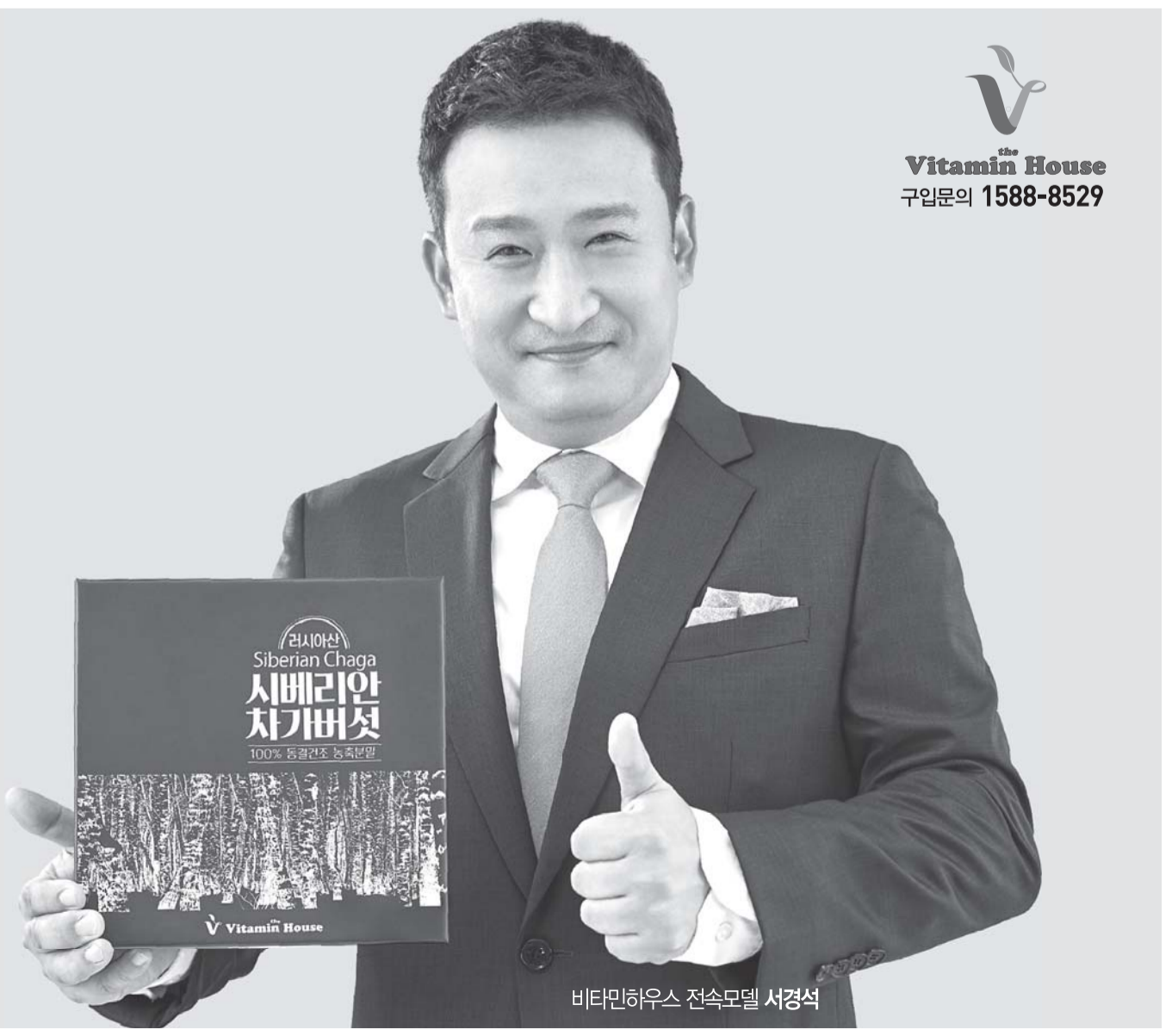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